



08-07 (통권 185호)
2008.02.21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모노라인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우려
-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압력 가중

경영 노트

- 필요한 인재를 기업이 직접 육성하는 시대

사회 트렌드

- 오바마 현상(Obama Effect)

저널 브리프

-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전망

洗心錄

- 성공을 위한 조건, 감사(感謝)

□ 모노라인*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우려

-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지닌 모노라인 부실은 금융시장 경색 가능성을 증대시켜, 제2의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재연될 조짐이 보임
 - 국제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와 S&P는 채권보증업체(모노라인)인 MBIA와 암박(Ambac)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 검토를 발표하였음
 - 모노라인 업체가 보증해 준 채권들에 대한 연쇄적인 신용등급 하락은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모노라인 업체의 신용하락은 보증채권의 신용도 하락 및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다시 금융기관 자산 상각 확대 및 손실 증가를 통해 금융시장 경색 등 연쇄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지게 됨

□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압력 가중

- 최근 미국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한국은행에 대한 콜금리 인하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미국과의 금리격차로 금리차익을 노리는 재정거래와 국내 자금시장의 교란위험으로 인해 5.0%인 콜금리의 인하 압력이 가중됨
 - 그러나 2008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9%에 달하는 등 국내물가가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FRB는 3월 18일의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음

* 모노라인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할 때 이를 대신 지급하기로 보증해 주는 회사임

□ 필요한 인재를 기업이 직접 육성하는 시대*

- (개요) 최근 국내 대기업들은 과거 외부에서 인재를 스카우트 하는 시스템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음
 - 대기업들은 필요한 인재를 직접 육성함으로써 임직원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충성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음
 - 삼성그룹, 현대기아차그룹, GS그룹, 포스코 등 대기업들은 사내 대학(원)과 외부 대학을 연계하여 고급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인재육성 프로그램) 대기업들은 외부 대학과 연계한 사내 대학 운영, MBA 지원, 해외 협력사 임직원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채택
 - 삼성전자는 사내 공과대학(SSIT)을 운영 중이며, 삼성전기, LG전자는 외부 대학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현대차그룹은 교육 범위를 중국, 미국 등 해외 협력사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포스코는 임직원의 국내 MBA 학비를 지원

< 기업 별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특징 >

	기업	프로그램	특징	파트너
1	삼성전자	SSIT	실무와 프로젝트 중심	성균관대
2	삼성전기	드림 캠퍼스	산학 연계교육	아주대, 경희대
3	LG전자	사내대학원	학비의 50% 회사 지원	부산대, 경북대 등
4	현대기아차	해외 협력사 프로그램	해외 협력사로 범위확대	해외 협력사
5	포스코	MBA 지원	학비 전액 지원	국내 주요대학 MBA

- (시사점) 우수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우수 인재의 체계적 육성과 유지에 더욱 주력해야 함
 - 지식기반 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수 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므로 지식기반 경제에 부합되는 육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육성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인재 유출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2008년 2월 14일 파이낸셜 뉴스 13면 참조

□ 오바마 현상(Obama Effect)

- 지난 5일 ‘슈퍼 화요일’ 이후 파죽의 10연승을 올리는 등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상원의원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오바마 매직(magic)’, ‘오바마 피버(fever)’라고 부를 정도의 소위 ‘오바마 현상(Obama Effect)’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음
 -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 데이빗 브룩스는 오바마가 자기 지역을 방문해 주길 고대하는 민주당원들을 가리켜 ‘오바마 강림 증후군(OCS)’이란 표현을 씀
 - abc방송 등은 마치 성자의 축복을 받으려는 신도들처럼 오바마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 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을 ‘오바마 컬트(Cult, 숭배)’로 명명함
 - 오바마의 선거캠페인은 종교집회이며, 그를 보기 위한 지지자들의 행렬은 순례에 가깝다는 것임
- 특히 그를 지지하는 젊은이들을 통해 ‘오바마’가 들어간 신조어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음
- (Obamafy) 미국이 오바마화하고 있다는 뜻
 - (Obamania) 오바마 열광 현상(mania)
 - (Obamacan) 오바마를 지지하는 공화당원(Republican)
 - (Obamentum) 오바마의 승기(momentum)
 - (Barackacy) 버락(Barack) 오바마와 민주주의(Democracy)
 - (Baracktannika) 오바마 관련 단어들을 모은 백과사전(Britannica)
 - (Obamaotose) 오바마에 실신할 정도(comatose)란 뜻
 - (Barackcupied) 오바마에 마음이 쫓혔다(occupied)
 - (Obambination) 오바마에 의해 양측의 갈등을 씻고 결합(combination)
- 이러한 오바마 컬트 현상은 ‘오바마의 개인적 매력’과 ‘변화를 갈망하는 미국인들의 욕구’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 다음달 4일 ‘미니 슈퍼 화요일’(370명 대의원)에서도 힐러리가 큰표차로 누르지 못할 경우 오바마 대세론을 굳혀질 것으로 전망됨

□ 국제 곡물 가격 급등과 전망*

- (현상) 최근 세계는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2007년 연말 기준 국제곡물가격지수는 '06년 초에 비해 약 2배 상승하였으며, '08년 국제 곡물 재고 수준은 '07년 기말에 비해 8.1% 감소
- (원인) 국제 곡물가격 급등은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 개발도상국 수요 급증, 국제 투기자본의 시장 유입 등에 의한 결과임
 -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 :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바이오연료 사용을 늘리면서,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쓰이는 곡물 가격이 급상승
 - 개발도상국 수요 급증 :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의 빠른 인구 증가와 높은 경제성장으로 식량 수요뿐 아니라 육류 생산용 사료 수요가 급증
 - 국제 투기자본의 시장 유입 :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제 투기자본의 국제 곡물 상품 시장 개입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이 또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
 - 다발하고 있는 이상 기후 : 지구온난화에 의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잦은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악화 또한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전망) 과거의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기상 이변에 의한 일시적인 공급 부족에 의한 결과라고 한다면 최근의 곡물가격 급등은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와 개발도상국 수요의 급증, 지구온난화에 의한 곡물 수확 감소 등에 의한 만성적 공급 부족 현상일 수 있음
 -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 현상은 또 다른 대체에너지가 마련될 때까지 지속될 것임
 - 한편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곡물 수요는 장기간 지속될 것임
 - 더욱이 지구온난화 문제 또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이상 기후로 인한 곡물 수확 감소 현상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이 글은 『매경ECONOMY』(2008.02.27)에 실린 글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성공을 위한 조건, 감사(感謝)

어릴 적 지독한 열병을 앓을 이후 어릴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던 세계적인 사회사업가 헬렌 켈러는 산책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마다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일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마치 헬렌 켈러와 같이 단지 성공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기능을 한다.

- ① **행복의 조건** :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인 소냐 류보머스키는 그의 저서 ‘how to be happy’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12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감사 표현하기’를 꼽는다.
- ② **자신감 부여를 통한 동기부여** :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한 층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 ③ **사회 공헌에의 동인** : 감사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반항심 또는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 ④ **건전한 자아 확립** : 감사는 개개인의 자아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밝고 건전한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이는 결국 성공을 위한 기반을 확립해준다.
- ⑤ **마음의 치유** : 감사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갈등, 좌절, 혼돈, 부조리 등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개개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작용을 한다.
- ⑥ **고난과 역경의 극복** : 감사는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다양한 환경 조건에 대해 인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준다.
- ⑦ **심리적인 충족** :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진정으로 충족되고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

- 헬렌 켈러(1880~1968) : 사회사업가